

A Challenge to Remember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는 도전 (고전 1:1-9)

Forgetting a New Heart

It was about 30 years ago that I remember meeting a young man who I'll call 'Arthur.' Arthur was on the heart-transplant waiting list...he was only in his early 20's. He desperately needed a new heart or else face death within a short time because of the damage a virus had done to his own heart.

It was at the time my own father had successfully received a new heart that Arthur also received his. With those newly transplanted hearts, they both experienced a radical transformation in their health. Where once they'd gasping for breath in trying to do the smallest tasks like walking up a couple of steps...they could do them effortlessly

I remember Arthur saying that he was so thankful for a second chance that the things that once marked his old way of life — 'binge drinking, smoking, wild partying' were well & truly in the past. We all believed him — I'm sure he believed what he said as well.

But over the months, Arthur's newfound freedom gave way to something else...Arthur began to drift back to the influence of his old friends until the time came when smoking, excessive drinking, & unhealthy partying became a regular part of his life. His health suffered as the culture around him became the dominant influence in his life.

How could Arthur have let that happen?...It seemed hard to understand...+ then it dawned on me — he'd forgotten the transforming grace that his new heart had brought. The culture of his friends soon filled the void of his forgetfulness.

30년 전에 한 젊은 남성분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아서'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서는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던 환자였고...그는 겨우 20대에 불과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그의 심장이 망가졌었기에, 그가 빠른 시일 내에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그는 곧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심장 이식을 받으셨을 즈음, 아서 또한 새 심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심장 이식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와 아서는 삶의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을 일 하나도 더이상 숨을 헐떡거림 없이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서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 말했고, 그는 더이상 술과 담배와 유흥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믿었고, 그 또한 그런 자신의 결심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후, 아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새로운 기회를 다시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그는 옛 친구들의 영향으로 다시 담배를 피우며, 과음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유흥생활이 그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주변의 악영향으로 인해 그의 건강은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이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그러던 중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새 심장을 받음으로 오게 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통해 이런 사실을 잊게 만든 것입니다.

What's that got to do with the start of this series on 1 Corinthians + this passage in particular? By way of a parallel — everything! The Corinthians had been radically transformed — new spiritual hearts on hearing + believing the gospel preached by the Apostle Paul. Yet the prevailing seductive culture had not just infiltrated the church — but as you read through Corinthians — had infected it + was threatening to destroy it.

How could the Corinthians have let that happen? They'd forgotten the grace of Jesus Christ that had transformed them.....it's a timely word to us as well....

But you might say, 'I'm not in danger of forgetting....I've never been more aware of God's grace than I am now....' Praise God for such present conviction....but never think for a moment that grace gives us a licence for complacency. the culture of Corinth was not that different to western culture — Australian culture — Melbourne culture. Like ancient Corinth our culture overflows with prosperity, idolatry, elitism, religious pluralism, hedonism & individualism....

We're all at risk of letting the unbiblical aspects of our culture shift our focus, pollute our minds, infiltrate our lives & in the end, leave us morally + spiritually bankrupt + shipwrecked. We dare not take grace for granted — lest as a church, one day we find ourselves very close to being torn apart like the Corinthians.

The Senders & Recipients (1-3)

V1, 'Paul, called by the will of God to be an apostle of Christ Jesus, and our brother Sosthenes.

이런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는 이 상황과 아주 유사하며 모든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새 영적 마음과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된 복음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변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앞으로의 고린도서를 통해 보게 되듯, 이런 문화가 교회를 감염시키고, 파괴하려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들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아마 당신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위험 가운데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그러나 이런 은혜가 우리를 안주하게끔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주변의 문화는, 지금 우리의 서구, 호주, 멜번의 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고린도 지역과 같이, 우리의 현 문화 또한, 번영 주의, 우상숭배, 엘리트주의, 종교 다원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이지 못한 세상적 문화가 우리의 이목을 사로 잡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에 침투해, 결국 도덕적, 영적 타락을 불러일으키는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하여 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내는 자와 받는 자 (1-3 절)

1 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Corinthians is from the Apostle — or sent one — Paul. He was set apart as apostle by God's will — he didn't choose it for himself....it was God who appointed him. We also see that Paul wasn't the only one involved in the sending of this first letter... It's also from 'our brother' (in Christ) called Sosthenes.

It takes us back to Acts 18:17 where we find that 'Sosthenes' was the name of the ruler of the synagogue in Corinth who was with Paul at his hearing before the Roman proconsul called, 'Gallio.' When Gallio drove the Jews from the hearing, they seized Sosthenes & beat him.

This came after the conversion of Jews from the synagogue + conversion of Gentiles from Paul's gospel preaching from the house next door to the synagogue. It's this mixed group of believers who were the recipients:

v2, 'To the church of God that is in Corinth, to those sanctified in Christ Jesus, called to be saints together with all those who in every place call upo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both their Lord and ours:'

From the people & events in Acts 18, we know that Paul began his ministry in Corinth ~ February 50 AD, ministered there for 18 months + left for Ephesus in September 51 AD — after Paul left Corinth, the newly converted Apollos arrived + continued where Paul left off.

It seems Paul wrote this letter after only ~ 3 years from the time he'd left them. So much seems to have gone wrong in such a short space of time.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사도였고...이는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도록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형제인 소스데네라는 분과 함께 보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17 절을 보면, 소스데네는 고린도 안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였고, 바울이 로마의 지방 총독인 갈리오 앞에 설 때, 함께 있던 자입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들은 소스데네를 잡아다 때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받는 고린도의 교인들은,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회당 옆에 있던 집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행전 18 장에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50 AD, 2 월에 사역을 시작한 것을 압니다. 그는 거기서 18 개월 동안 사역하였고, 그 후 51 AD, 9 월에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막 회심한 아폴로가 도착하였고, 바울의 사역을 이어 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3 년이 지나서, 이 서신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3 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잘못된 길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But what we're struck with is that Paul addresses the Corinthians as, 'sanctified in Christ Jesus, called to be saints'.

When they trusted Jesus — they were set apart as holy + called 'holy.' What Paul is saying is that they were + still are, holy before God. In light of that, he says, v3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Here Paul reminds us not only that the ultimate sender of this letter is God the Father + the Son, our Lord Jesus Christ...but that God Himself sends His grace + peace to them.

This seems utterly remarkable for how messed up the Corinthian church had become... Instead of starting off by tearing into them for their sin...he reminds them of their status + tells them that God is sending His grace + peace to be upon them.

That is grace! It tells us that no matter how much of a moral mess we've made in life — the one who calls upon Christ has been + forever will be set apart as holy before Him with the calling to pursue holiness.....that God Himself in Christ greets us with grace + peace.

Don't let Satan mislead you into thinking that because of your sin, God greets you with scorn + so must be avoided. It's merely a crafty ploy to deceive you into further sin.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여러 문제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이 구별되어 거룩한 자로 불렸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사실은, 그들은 거룩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사도바울은 3 절에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사도바울이 상기시키는 사실은, 이 서신의 궁극적인 발송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의 은혜와 평강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영망진창이었던 고린도 교회에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표현은 매우 주목할만한 일입니다...그들의 문제와 죄를 바로 지적하기 보다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들의 신분에 대해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평강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망가지더라도,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은, 거룩함을 쫓으라는 그 부르심과 함께, 이전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자라는 사실입니다...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인사하십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사탄은 속이기를, 우리의 죄로 하나님께서는 은혜 대신 꾸짖음으로 우리를 대하실 거라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결국 더 죄를 짓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We have a loving God who remains committed to showering us with grace — particularly when we are broken by sin, the Fall + its demeaning effects. + When the world conspires

to lead us astray + begins to achieve its corrupting goal....God calls us to remember grace...from the very beginning it touched our lives...

Remembering Grace's Beginning with Thankfulness (4-6)

V4, 'I give thanks to my God always for you because of the grace of God that was given you in Christ Jesus, that in every way you were enriched in him in all speech and knowledge — even as the testimony about Christ was confirmed among you — '

Paul's thankfulness for the Corinthians is directed to God because of the grace God gave them in Christ Jesus. Notice that Paul gave thanks for them continually...as he looked back on how God's grace was manifested among them — in every way enriched in the words they spoke + the content of their thoughts. It happened as 'the testimony' ie 'the witness' of Christ was confirmed — verified — proven to be true among them.

The priority for Paul as he begins to address the moral mess that the Corinthian church had become was to remember God's grace among them. That grace showed itself by the sudden shift in the quality of their thoughts + the subject of their speech....

That change was as the direct result of Paul's testimony about Christ that they believed — there was no doubt that God had worked His grace to bring remarkable transformation. Paul recalls it with thankfulness.

We're immediately struck with Paul's astonishing first response to the wayward church.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특별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우리를 타락한 길로 인도하며, 그 목표를 이루려 할 때...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만지신 그 처음의 때를...

감사와 함께 은혜의 시작을 기억하라. (4~6 절)

4~6 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를 보며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그 안에서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다고 말씀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이들 가운데 참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는 고린도 교인들의 도덕적 실패를 책망하기에 앞서, 그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에 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언행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왔던 그 은혜를...

이런 변화는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은 그 감사함 가운데 다시 되짚는 것입니다.

방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런 응답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Of course he'll go on to expose, rebuke + correct them....but here, Paul wants them to remember God's grace at the beginning + like him, to know that despite what had happened.....there is continual thanks to be had.

It's very different to what might be our natural first response when we encounter sin in others. How easy it can be to prioritise disappointment & anger....especially when we might have invested time & energy in others ... Here's the great reminder that no matter how bad things might get — the grace of God in Christ from that was at work to create faith always gives us great cause for continual thanks.

Remembering Grace's Purpose with Assurance (7-8)

V7, 'so that you are not lacking in any gift, as you wait for the revealing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will sustain you to the end, guiltless in the day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purpose of God's grace was to lavish his spiritual gifts upon them. This is also striking as one of the problems in the church was worldly pride surrounding the various gifts in the church. Instead of celebrating their unity + giving thanks for God's gifting for their perseverance....the world's culture of elitism had taken root + was tearing them apart with division (see next week).

Even so, God's powerful purpose remained — their gifts — not lacking were for their good in the time of waiting...the word conveys 'eagerness' in waiting — looking forward to the day of Christ's return.

물론 후에 바울은 이들의 죄를 드러내고, 꾸짖으며, 교정할 것입니다...그러나 바울은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록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이는 타인의 죄를 대하는 우리의 보편적인 반응과 매우 상반되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들였던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실망과 분노를 먼저 표출하기 쉽습니다...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무리 그 사람의 죄가 크다고 할지언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속해서 감사하게 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확신과 함께 은혜의 목적을 기억하다. (7~8 절)

7~8 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 목적은 그의 영적 선물로 그들을 풍성케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옴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사를 중심으로 세속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은 엘리트주의에 그들은 빠져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의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모습을 다음 주 설교를 통해 볼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족함 없는 그들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때에,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By Jesus' grace He Himself was going to 'sustain' them —

In other words, what the Lord confirmed at the beginning of faith, He will continue to confirm in the journey of faith — to the end, to present us 'guiltless' on that awesome + most sobering day of judgement.

Philippians 1:6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bring it to completion at the day of Jesus Christ.'

When the world begins to dominate our thoughts...it also corrupts our hearts to make for amnesia concerning our God-given abilities & the particular purpose God has for them. We remember that God equips us uniquely for one another — for our perseverance. He confirms, seals & daily secures us in them to guarantee our perseverance to the great end of being blameless before the judgement seat.

When we begin to get weary in the exercise of gifts...it can be that we're simply trying to do too much — even with the best of intentions of loving others as we love God. But at times, it can also be a sign that we might have begun to forget the source + purpose of our talents — from God — for one another's joyful perseverance.

We can't be proud — we must not forget that Christ gave them, continues to confirm them + has made it His mission to complete the purpose.

When we know His purpose + provision....the effect is to motivate us all the more to do what we can to love in the unique way he calls each of us to love....joyfully engaged in helping one another according to our gifts.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지탱하신 것입니다. 말인즉, 초기 그들의 믿음을 확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확정하시며, 그들을 죄 없는 자로 서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또한 타락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이런 능력의 목적을 잊도록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이들의 유익과, 그들의 인내를 위해 무장시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날까지 우리를 매일 확정하시며 안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사 가운데서 지치기 시작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좋은 의도 가운데서도, 단순히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기 때문에 지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침이 때로는 우리 은사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부터 왔으며, 다른 성도들의 인내의 유익이라는 그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신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만할 수 없습니다...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며,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의 목적과 그의 공급하심을 알 때...이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는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우리의 은사를 따라, 기쁨 가운데 다른 이들을 도움에 있습니다.

What a beautiful thing it is to behold God's gifts flourishing among His church...
I encourage each of you to continue seeking to use your God-given talents to serve one another with joy — Before you do & as you do...remember the great purpose — to encourage + build one another spiritually under God to persevere...& never forget the Giver...

Remembering Grace's God with Adoration (9)

v9, 'God is faithful, by whom you were called into the fellowship of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Paul finishes this section by calling his readers to remember the character attribute of God as 'faithful.' From His faithfulness came His call to fellowship with His Son — the eternal Son — our Lord Jesus Christ.

He calls them to remember that it was from the pure faithfulness of God that they were called. The term that theologians use is 'effectual call.' The authors of our WCF devoted a whole chapter on this blessed truth, that starts by saying, 'All those whom God has predestined to life, & those only, He is pleased in His appointed & accepted time effectually to call, by His Word & Spirit, out of that state of sin & death, in which they are by nature, to grace & salvation by Jesus Christ, enlightening their minds spiritually & savingly to understand the things of God; taking away their heart of stone, & giving them a heart of flesh, renewing their wills, & by His almighty power determining them to that which is good, & effectively drawing them to Jesus Christ, yet so, as they come most freely being made willing by His grace.'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이런 은사가 그의 교회 가운데 풍성히 나타남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를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계속해서 그 기쁨 가운데 사용하기를 격려합니다...그리고 우리가 이런 달란트를 사용하기에 앞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은사의 목적과 이런 은사를 주시는 분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배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 (9 절)

9 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는 사실을 기억기를 호소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미쁘심/신실하심 가운데 그의 영원한 아들이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교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효과적 부르심”이라 합니다.

이런 복된 진리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저자들은 이처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을 또 그들만을 그의 정한 그리고 받는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되, 그들이 본질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그때 그는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밝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결심 시켜 선한 일을 위하게 하시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효력 있게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자가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온다.

The Corinthians had come to fellowship — that is also — to union with Christ by God's irresistible call of grace...borne from His faithful character. Brought from sin & death to light & life.

In the coming weeks...we'll see the stark inconsistency — of how within just three or four years, the culture had infected the church...though the rot had begun to set in...there was still great hope. The only hope — the hope that is in the grace of God found in Christ alone.

Remembering the God of all grace + in particular His effectual call upon us in Christ is move us to adoration. When we stop delighting in God....it's a sure sign that we've forgotten His faithfulness & let the attractions — even the worries of the world dominate our mindset.

We adore the faithfulness of a loving spouse — devoted children — dear friends. How much more as we remember His faithfulness...can we adore our faithful God in the grace He has given

Actively Remember...Lest we Forget

As the Apostle Paul began to write his second longest NT letter after Romans...to a problem filled church - it was with the challenge to remember , Grace's beginning with thankfulness, Grace's purpose with assurance, Grace's God with adoration. It was being forgotten...*how could* such marvellous grace have been forgotten?

I asked the same all the more about Arthur when I heard that he'd died....

the devastating culture filled the void that his complacency had tragically created.

Actively remember....lest we forget.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부르심 가운데 그 교제의 자리로 오게 된 것이며, 이는 또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룸을 의미합니다.

3~4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 주변의 문화가 어떻게 이 교회를 감염시켰는지를 봄으로, 우리는 극명한 모순을 앞으로 요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비록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했을지라도, 여전히 큰 소망을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효과적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멈출 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세상의 유혹과 걱정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의 신실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신실하심을 더욱더 기억하게 될 때,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잊지 않고 열심히 기억함

사도바울이 로마서 이후 두 번째로 긴 서신을, 문제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그들은 감사케 하는 은혜와, 은혜의 목적과, 경배케 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 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와 같은 질문을 앞 이야기에 등장한 아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물었습니다. 주변에 잘못된 문화의 영향으로, 비극으로 이끄는 안일함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